

수소저장용기 시험평가 본격 가동

전주시, 인증시험센터 개소... 탄소섬유·수소저장 기술 융복합으로 탄소산업 동반 성장 기대

전주시가 탄소섬유와 수소저장 기술의 전략적인 융복합을 통해 지역 탄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제품상용화 지원도 본격화한다.

시는 23일 팔복동 산업단지 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규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본부장, 양선화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 조성경 산업통상부 섬유산업소나노과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탄소·수소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저장용기 인증시험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경과를 청취한 뒤, 대형 수소저장용기 시험 장비들이 가동되는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그간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던 고난도 인증 시험이 국내 기술로 실현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러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탄소 복합재를 활용해 수소용기를 제작하는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센터 운영의 경쟁력을 높여 탄소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시는 이번 수소저장용기 인증



전주시는 23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규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본부장, 양선화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 조성경 산업통상부 섬유산업소나노과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탄소·수소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저장용기 인증시험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시험센터 준공을 통해 지난 3월 가동한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메뉴팩처링 인큐베이션 허브)와 연계해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0억 원이 투입된 인증시험센터는 △수소가스 반복가압시험 장비

국내 수소저장용기 제조업체들이 인증을 위해 해외에 의존하며 겪었던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핵심 탄소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와 기술자립 강화라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인증시험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수소용기의 고압성·경량성 확보 기술의 핵심인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탄소섬유 시장 수요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운영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앞으로 이 센터를 국제표준 시험·교정 기관으로 인정받고, 해외 인증기관들과 협력해 글로벌 수준의 시험인증 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는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심장부로서 축적해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소소재가 핵심인 수소 모빌리티 분야까지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면서 "탄소 기업 유치와 산업 집적화를 가속화해 전주를 신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지역 정밀가공 뿌리산업 기업들이 기부와 나눔, 지역 소비의 선순환을 기반으로 하는 전주형 민생경제 살리기 프로젝트인 '전주함께장터'에 동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민생경제 살리기 '전주함께장터'

전주정밀가공특화단지협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과 동참

전주지역 정밀가공 뿌리산업 기업들이 기부와 나눔, 지역 소비의 선순환을 기반으로 하는 전주형 민생경제 살리기 프로젝트인 '전주함께장터'에 동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주정밀가공특화단지협회(회장 김강석)는 23일 전주지역 복지시설인 더나눔 주간보호센터와 해남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등 60여 명과 함께 지역 식당을 찾아 한 끼 식사를 나눴다.

지난 2024년 설립된 전주정밀가공특화단지협회는 정밀가공 뿌리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15개의 회원사가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번 행사는 협회 회원사들의 모은 기부금을 활용해 골목식당에서 식사를 나눔으로써, 기부가 지역 소상공인 가계에 소비로 이어지고 다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으로 환원되는 '전주함께장터'의 선순환 구조를 직접 실천한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취약계층에 온기를 전하는 '전주함께장터'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나눔을 꾸준히 실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강석 회장은 "전주시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취약계층에 온기를 전하는 '전주함께장터'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나눔을 꾸준히 실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추첨·혜택 지원

납세자의 날(3월 3일) 연계 추첨 시기 변경·성실납세 감사 의미 강화

전주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에 대한 우대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2026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추첨 및 혜택 지원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온

납세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제도의 상징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그동안 매년 10월에 실시하던 성실납세자 추첨을 납세자의 날(3월 3일)과 연계해 추진키

로 결정했다.

추첨은 이날 전주시청 세정과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완산구 50명과 덕진구 50명 등 총 100명이 선정됐다. 그러나 최근 3년 이내 성실납세자 추첨 당첨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 납세자이며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첨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며, 당첨자에게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전주사랑상품권 3만 원권(दे지카드 충전)이 지급된다. 데지카드를 미소지한 당첨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대체해 등기 발송될 예정이다.

당첨자 명단은 24일부터 15일간 전주시 누리집과 완산·덕진구청 누리집에 게시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정원문화도시 활성화 포럼 25일 개최

전주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주정원문화센터 1층 강의를 정원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원을 가꾸는 즐거움이 도시의 새로운 회복력이자 대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정원을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용적 수단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주의 정원을 말한다 △전주의 미래를 그

리다 △함께 답을 찾는다의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인 '전주의 지금을 말한다'에서는 박은별 전주시정원연구원 연구위원과 최현규 전주정원문화센터장이 각각 발제를 통해 전주 정원도시 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전주정원문화센터에서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궈온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두 번째 세션인 '전주의 내일



을 그린다'에서는 수려한 경관과 국내 최대 민간정원 규모를 자랑하는 '산이 정원'의 이병철 대표이사가 '해남 산이정원에서 바라본 전주는 정원'으로 발표하고, 오민근 정원 크리에이티브 리서치&컨설팅 대표가 전주다운

정원문화도시의 모습과 이를 만들어가기 위한 문제 해결형 접근 방법을 소개한다.

마지막 세션인 '함께 답을 찾다'에서는 2026년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 박람회'의 조직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최선현 씨포토스 대표를 좌장으로 정문선 청주대학교 교수와 이선희(사)더숲 사무국장, 정혜영 정원 밉스가 정원 의 이병철 대표이사가 '해남 산이정원에서 바라본 전주는 정원'으로 발표하고, 오민근 정원 크리에이티브 리서치&컨설팅 대표가 전주다운

권희성 기자

전주시, 정신건강 전문봉사단 공식 출범

재능봉사를 통해 이웃들의 정신건강을 함께 돌보며 모든 전주 시민이 당당하게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대한민국 정신건강 으뜸도시 전주'를 함께 만들어갈 전문봉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전주시는 23일 전주지원봉사센터에서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온정 토닥토닥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포함된 것으로, 이들은 앞으로 지역사회에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게 된다.

봉사단에는 △정서돌봄팀 △마음방역팀 △이미용팀 △빨래생활지원팀 △문화공연예술팀의 총 5팀 11개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정신건강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신체 건강과 정서 돌봄, 환경정화, 문화 예술 등 실질적 필요한 도움을 주는 맞춤형 봉사를 펼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